

정성이 곧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



- ▲ 청정지역에 위치한 부광농장 외관, 무창계사 3개동(폭 12m×길이 100m).
- ▶ 부광(釜光)농장 박임수 사장

지난 2001년 6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육계사육농가는 평균 22,000수 규모에 3,000가구 가 넘었지만, 2006년 6월에는 전체 2,016가구로 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한 가구당 평균 41,000수로 사육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여름에는 최대 환기 효과로 계사 내 높지 않은 온도를 유지시켜야 하는 만큼 사양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서 여름철 출하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 관리나 시설이 미비한 농가에서는 높은 폐사율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혹서기에도 여념 없이 높은 생산실적을 나타내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부광(釜光)농장' 대표 박임수 사장(50세)을 찾아 관리방법과 농장주로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하는지 들어보았다.

박임수 사장은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2년 육계 3천수를 시작으로 7년 동안 양계업에 종사하였지만, 중도에 100여 마리의 모든 사육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결국, 미비한 축사설비와 오폐수 등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 문제로 초창기에 사육 경험이 있는 육계업을 2002년부터 다시 경영을 하면서 양계와의 평생사업을 꿈꾸고 있다.

부광농장은 충남 서산 시내 중심지에서 20km 가량 떨어지고, 박사장의 자택과 5km 가량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산 아래 위치해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6천평 대지에 건평 3천평으로 무창계사 한 동(폭12m×길이100m)에 2만수씩 총 3개동에 6만수의 육계 사육을 하고 있다.



▲ 기존 하나로만 이용하는 사료통(5ton)을 두개로 분리 설치하여 오래된 사료부터 소진하고 사료의 재고량이 남지 않게끔 한다. 습기가 차거나, 오래 보관된 사료의 유해물이나 곰팡이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부광농장의 시설

산아래 위치한 지역적 특성상 날파리와 모기 등의 해충이 많아 공기 흡입구를 막아 환기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여름철 많은 습기로 문제될 수 있는 쿨링패드 시설보다는 여름철 혹서기를 대비해 계사 앞과 옆의 환 설치로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뒤에 있는 8개의 대형 환으로 내부공기를 방출하는 터널 환기방식과 천장 위에서 공기를 빼내는 굴뚝배기시스템을 설비하여 계사 내 환기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다고 밝힌다. 단열재는 우레탄 폼과 갈바륨으로 된 자재를 이용하여 천장에는 70mm, 벽에는 50mm 두께로 설치하여 완벽한 단열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겨울



▲ 계사 내부에 터널환기와 굴뚝배기시스템으로 여름철 환기효과를 보고 있다. 계사 뒤쪽에는 8개의 대형환을 가동한다.



▲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박임수 사장 혼자서 6만수 사육이 가능하다.

에는 연료비가 절감되고, 여름에는 복사열이 90%이상 차단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 외에 사료급이 등 전자동화 시설로써 특별한 용역없이 박사장 혼자서 힘으로 경영하고 있다.

육계사육의 노하우

바다와 근접한 지역적 조건에 질병 피해는 많지는 않지만, 지난 2003년 국내 HPAI의 발병사례가 있었듯이 농장에서는 '방역'이 첫째 관리방법이라 말한다.

약 35일령 동안 키운 육계를 출하한 뒤, 계사내 계분청소와 정밀한 소독이 필수지만, 비용을 절감하고자 깔짚을 몇 회전 재사용하여 건강한 육계를 출하하지 못하는 농장이 더러 있다. 박사장은 계사내 오염도가 최저인 조건에서 질병 없는 건강한 닭을 출하하고자 5.5회 입추·출하를 하면서 매회 깔짚 제거



▲ 10일령 된 병아리의 육추모습

와 소독으로 깨끗한 계사를 만들고 있다.

준비를 완벽히 갖춰 놓은 상태에서 입추가 시작되면, 닭과 동일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다.

전자동시스템을 이용하지만, 닭은 주인이 정성을 쏟은 만큼의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입추부터 출하까지 전 과

정의 세밀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병아리 초기에는 시에서 지원되는 ND백신 등 기본적인 백신을 이용하지만, 다른 농가와 다르게 2번에 나눠서 투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13일령에 감보로 백신을 3시간 투약해야 한다면, 타 농가에서는 제한시간 이상 사용하여 3시간 이후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3시간의 지속시간을 고려해 3시간씩 두 번에 걸쳐 총 6시간 투약하고 있다.

세심한 관리를 통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2일의 부광농장의 실적을 보면 67,800수 중에서 67,500수를 출하여 33일의 육성기간 동안 99.62%의 육성율을 보였다. 이때의 사료 요구율은 1.60이었고, 생산지수는 327을 보여 타 농가보다 높은 성적을 자랑하고 있다.

계열화 수평관계로 발전하길...

가장 중요한 점은 병아리, 사료, 농장장 관리 모두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육계 생산자 측면에서 볼 때 같은 사육관리를 해도 육계성적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병아리 문제일 수 있다고 한다.

건강하지 못한 병아리를 공급받으면 100%의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부화장에서의 세심한



▲ 박임수 사장, 이동용 지부장, 이헌수 총무(좌부터)

선별과정을 통한 공급이 이루어져 육계, 종계, 부화업체 모두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우수한 사료 공급을 통해 높은 출하성적이 나오길 기대하고 결국, 종계로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관계가 성립된다면 육계생산자 역시 재미있는 사육이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병아리로 인해 저품질의 병아리가 들어와도 공급처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에 따라 병아리 실명제가 100%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를 위해 종계DB의 시급한 도입이 조기 정착화 되어야 할 것이다.

박사장은 육계생산자와 계열사간의 수직계열화 관계로 인해 양계산업을 위해 평생 몸담은 생산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현실이고, 2세들이 가업을 이어 기술적인 면을 향상시켜 지역내 양계발전을, 크게는 국내 양계산업에 이바지 하기위해 양계업에 종사하는 육계, 종계, 부화장, 계열사의 모든 관계가 수평관계로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육계계열화사업의 정착을 위해 육계인들이 뭉쳐 한 마음을 다질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하였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